

세희망의 길

세희망의 길
VOL.31



현장24시
도심부터 산간 오지까지,
대한민국 통신망은 우리가 책임진다!

기획특집
2017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KTTU 카툰
대부제도 업그레이드 설명서

KTTU 레이더
KT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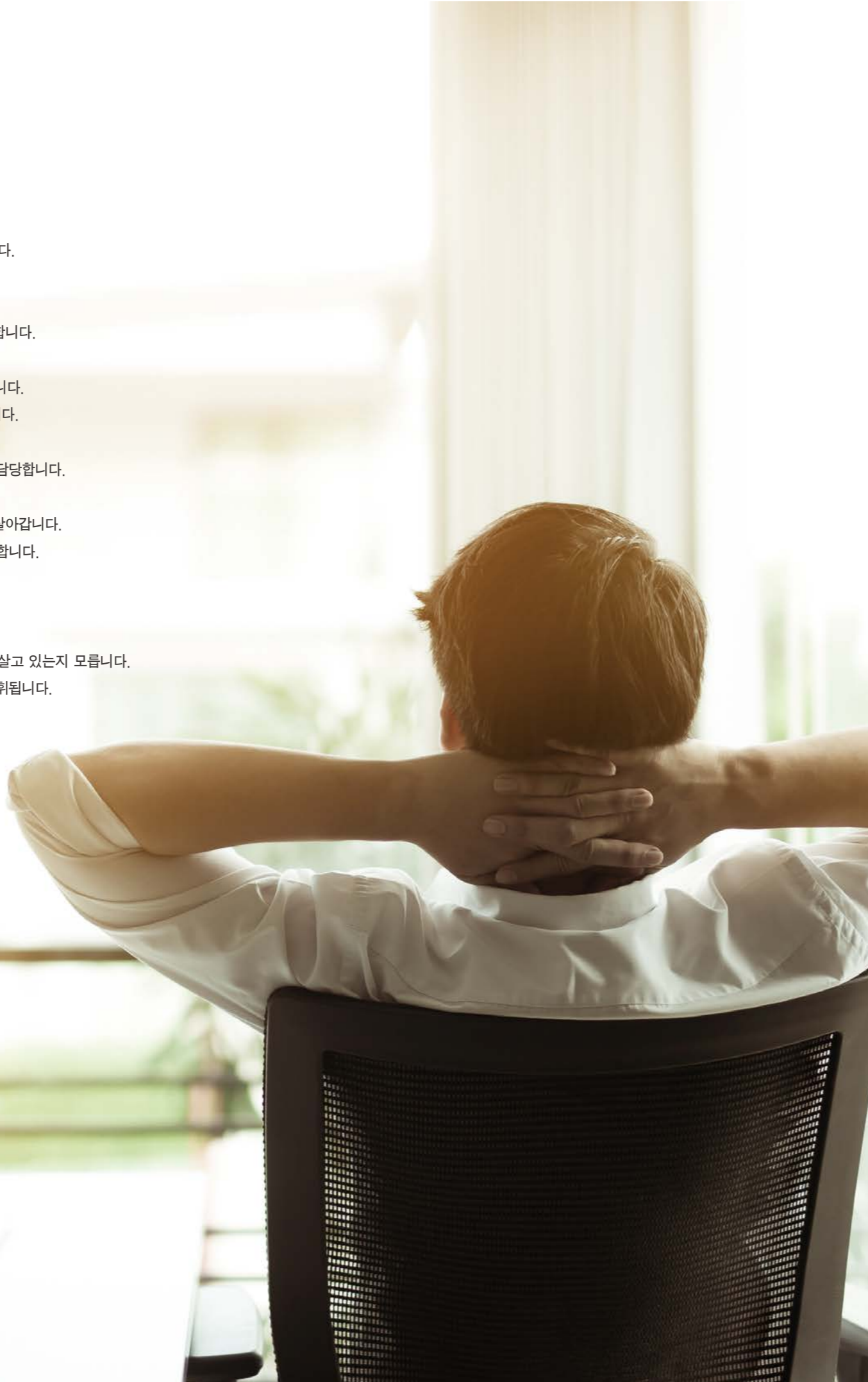
휴식은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눈동자가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이 다쳐도 아픈줄 모르고 계속 달리게 합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근육은 느슨해 집니다.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재생, 치유와 회복을 담당합니다.

성과에 쫓기는 사람들은 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채 살아갑니다.
 퇴근 후에도, 휴가 중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늘 숨가쁜 긴장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교감신경을 억압한 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될 때, 창조적 능력이 발휘됩니다.
 잘 쉬는 사람이, 더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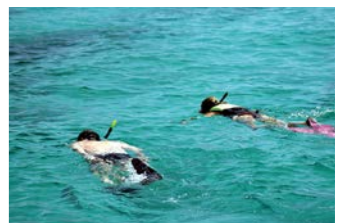


Contents

vol. 31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2017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KTTU Mate	12	케이티셋 노동조합 2대 집행부 박경춘 위원장
이슈 & 사회	1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담겨 있나
현장 24시	16	도심부터 산간 오지까지, 대한민국 통신망은 우리가 책임진다!
KTTU 카툰	20	대부제도 업그레이드 설명서
KTTU 리서치 1	22	KT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처법
KTTU 리서치 2	24	반려동물과 '잘' 살아가기
KTTU 클로즈업	26	2017년 하계휴양소 운영
토닥토닥	28	시원한 북강스를 위해 챙겨야 할 冊, 여섯 가지
길따라 멧따라	30	미소의 나라, 자유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태국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T TRADE UNION NEWS

2017년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임금피크 대상자 사기 진작 프로그램 등 협의·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23일(금) 오전 10시부터 분당 본사사옥 17층 회의실에서 2017년 2/4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시행 등 노동조합이 요구한 4개 안건에 대해 협의·의결했다.

이날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시행 ▲휴직 후 잔여연차 이월제도 ▲현장 근무자 블루투스 헤드셋 지급(CS, Biz, CM, 네트워크) ▲자가차량 연비 조정 등이다.

협의 결과 노사는 4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시기와 대상 등 일부 안건의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협의·의결 사항

요구 안건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피크제 대상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 생활입소 - 퇴직care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퇴직전 3개월 유급휴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9세 1회 지원(4인기준) - 만59세 정년퇴직예정자 대상 시행 - 특별휴가(유급) 사용 활성화 노력을 위한 노사협의 후 추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후 잔여연차 이월제도 도입 (장기휴직자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복직자 限, 복직년도 발생 연차의 50%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토록 허용 (희망자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근무자 블루투스 헤드셋 지급 (CS, Biz, CM,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근무자 限 지급 - 지급시기·대상 별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차량 연비 조정 - 13.5km/ℓ → 10.5km/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표준연비 적용

※ 블루투스 헤드셋 지급사항중 CS팀, Biz팀은 IT폰 지급시 기 지급하여 제외.

IT연맹 대의원대회 열려, “공감·공존의식 바탕으로 하나된 연맹으로 우뚝설 것” 결의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정 윤모, 이하 IT연맹)은 6월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강당에서 2017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보고 및 예·결산 승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윤모 IT연맹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 뒤 “노동계의 전환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민주적인 일터와 노동조합을 위해 우리 연맹이 뚝뚝 뭉쳐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단사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는 대화로 풀어가고, 설령 합의된 사항이 내 의견과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IT노동자로서의 동질의식을 회복하자”며 “연맹 집행부 또한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총 140명의 대의원 중 98명이 참석해 성원 된 가운데 ▲2016년 사업연도 사업보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7년 사업연도 사업계획 ▲한국노총 파견자(대의원, 선거인단, 중앙위원) 선출 ▲2017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8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KT노동조합은 2017년 6월 12일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 제8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7년 2/4분기 노

사협의회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현장 조합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제도 외 3개 안건으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현장의견 중 조합원의 요구가 높은 사항을 가려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상반기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발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KBN 방송실에서 2017년 상반기 (하계) KT 직원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 명을 지역별 박수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추첨은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청접수 결과 총 2,241명이 응모하여 약 75:1의 높은 경쟁률을 선보였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조합원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장 이상의 조합본부 및 부장, 센터장, 지사(지점)장 이상은 제외했고, 본사(사업부서/지원부서 포함) 팀장은 포함시켰다.

선발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은 문서정책 자료실이나 Kate 전자게시판, 추첨 과정은 KB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버전 / PC버전-

■ 글로벌 어학연수 캠프안내

- ▶ 캠프일정 : 2017. 7. 20 ~ 8. 18 (예정)
- ▶ 프로그램 : 실질적 학습효과 및 글로벌 체험
 - 어학연수 : 캐나다 씬머 스쿨링 프로그램 참여 및 홈스테이 등
 - 문화체험 : 유명대학(UCLA, 버클리), 주요도시 및 자연탐방 등
- ▶ 어학연수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자세한 일정 개별통보 예정(서약서 제출 필요)
 - 어학연수 대상 학생은 미리 여권 준비요망

※ 예비후보자는 기 선발된 인원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첨순번에 의하여 추가 선발 예정
※ 글로벌 어학연수 선정 대상자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고 바랍니다.

정윤모 위원장, 평창 올림픽 추진단 및 강릉지역 지부 조합원 격려 방문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과 조합간부는 6월 7일(수) 1시부터 이틀간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단’을 방문, 채 1년이 남지 않은 올림픽 준비로 바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어 서강릉 관제센터에 들러 지부장,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와 현황 등을 경청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은 “KT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신주관사로서 통신망, 방송망 지원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도 선보이게 되어 조합원 여러분의 책임감과 부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고생한 만큼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하게 될 5G 통신서비스를 당당히 선보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5G를 비롯한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는 발판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2017년 2분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5일(목) 본사 사옥 회의실에서 2017년 2분기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지난 4월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C부문 전기차 도입(안)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주요사업 실적은 물론 상급단체, 전임 위원장 등 노동조합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C부문 전기차 도입 ▲우리가족 휴가 세부시행 계획 ▲UCC 글로벌 봉사활동 세부 시행계획 ▲'17 우리동네 노사 휴가 세부 시행계획 ▲현장 직원 여름용 비품 제공 ▲직원 건강검진 조기 시행 등 의결 안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의했다.

△전기차 도입은 KT그룹의 혁신적 이미지 제고와 업무효율성,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일부 차량의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우리가족 휴가 세부 시행, △UCC 글로벌 봉사활동 시행, △우리동네 노사 휴가 세부 추진은 각각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KT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내 영업동력 확보에 기여가 높아 안건으로 상정됐다.

C직 유형변경(A형→B형) 프로세스 수시시행... 대상자 적합여부 및 업무 영향도 고려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6년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C직 유형변경(A형→B형)을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것

보다 적시에 유형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현직업무가 어려운 C직 조합원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유형 변경 프로세스를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수시 유형 변경 프로세스 단계〉

- ① 단계 : 유형 변경 적정성 판단
 - 주관 : 소속 지사장
 - 검증내역: 대상자 적합여부 및 관할권역 업무 영향도 고려 시 적정 여부 판단
 - ※ 의료법에 근거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 부서장 의견 고려
- ② 단계 : 지역본부 인사위원회 시행
 - 지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③ 단계 : 부문 최종 확정
 - ※ C직 채용목적에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향후 개인 질병/사고에 의한 유형 변경 요청 시에도 해당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수시 시행

한노총 김주영 위원장, KT노동조합 방문... 한국노총 지지후보 당선을 위한 현장돌려



KT노동조합은 5월 8일(월) 노동조합을 예방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과 문현군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의 이번 KT노동조합 방문은 각 단사 조합원들에게 한국노총의 대선방침을 설명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운모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12개 지방본부 등 KT노동조합의 조직을 간략히 설명한 뒤 "KT노동조합은 물론 IT연맹과 한국노총은 많은 것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이며 앞으로도 늘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故 김낙성 선배열사 등 합동추모제... "고귀한 품성과 헌신정신 따르겠다" 다짐

KT노동조합은 4월 28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 유평피아 추모관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앙본부 각 실장 및 12개 지방본부위원장과 조합본부, 그리고故 김낙성,故 김왕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동지 유가족이 함께했다.



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은 다섯 선배님들의 추모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고 밝힌 뒤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율은 일부 대기업에서 이뤄질 뿐, 중소기업장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여전히 산재 취약자로 생명을 담보 당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황성관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선배 열사들께서 어렵게 쟁취하거나 혹은 지키려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이어오고 있는지, 혹 그 고귀한 품성과 헌신의 정신을 잠시 잊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사에게 바치는 추모 시 낭송이 이어졌다. 충북지방본부 김신녀 여성국장은 추모사를 통해 "자본이 강요한 세상살이가 아무리 삭막할지라도 뜨거운 동료애로, 불뚝불뚝 일어나는 숨결로, 불길에 맞선 선배들의 길을 따르겠다"고 낭송,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2017년도 임시 지부대회 열려... 전국 대의원 260명 선출

KT노동조합은 4월 27일(목) 전국적으로 임시 지부대회를 열고, 2017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여 총 260명의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전국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편, 지부대회에 이은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오는 5월 중 지방본부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선출된 대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전국 대의원 선출명단〉

강북 지방본부(31명)		
김재준(강북고객본부)	이진구(파주)	진정현(구리)
이성복(강북고객본부)	박종국(광진)	정성호(남양주)
이완재(중앙)	이주호(성수)	황건선(양평)
안영환(원효)	하태시(종량)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김동현(서대문)	박용성(노원)	강윤식(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전용섭(은평)	김정호(도봉)	김명수(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기남호(신촌)	손영국(월곡)	유지영(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이재형(광화문)	김중성(강북)	최호규(P운용센터)
인윤식(동대문)	이원용(의정부)	박근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이창주(고양)	김산성(동두천)	
박종율(덕양)	이동철(포천)	

강남 지방본부(28명)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오은호(수원)	남기형(화성)
정영미(강남고객본부)	이선규(남수원)	허남일(분당)
손득모(송파)	이창일(동수원)	오정근(경기광주)
박정상(강동)	김대진(용인)	이정형(성남)
유병택(가락)	김용배(수지)	최완영(하남)
유광섭(강남)	지영근(여주)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
전성욱(반포)	김학능(이천)	정영근(서울강남유선운용센터)
정차석(서초)	김재후(명택)	황윤구(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이성구(신사)	이송찬(안성)	
박성순(양재)	정상철(오산)	

서부 지방본부(34명)

차완규(서부고객본부)	엄금용(대방)	박은규(연수)
유미선(서부고객본부)	최오회(안양)	박원호(송의)
김수홍(강서)	임영락(서안양)	김윤철(서인천)
강일모(가양)	이평수(군포)	김철호(김포)
김혜광(목동)	유대중(안산)	안상호(항동)
최종문(구로)	유광림(동안산)	윤용현(강서무선운용센터)
김영필(금천)	허준호(시흥)	김영근(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한원호(개봉)	박성산(부천)	최화웅(인천유선운용센터)
안진홍(영등포)	차홍열(북부천)	허중욱(미디우선운용센터)
김성배(여의도)	민형식(부평)	박연조(강남엔지니어링센터)
김진규(동작)	김오철(계양)	
유희수(관악)	이정각(인천)	

부산 지방본부(40명)

김호겸(부산고객본부)	이창림(수영)	김원용(거제)
명창욱(부산고객본부)	남상길(북부산)	김도형(통영)
김석득(동부산)	황일용(김해)	권구호(사천)
김수택(안산)	고정규(구포)	산창재(거창)
박상일(동래)	김상찬(창원)	박찬기(산청)
이기혁(연산)	정성민(마산)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김경철(기장)	서명규(밀양)	최영철(부산유선운용센터)
최형진(서부산)	박영용(진해)	최용석(울산유선운용센터)
김진용(사하)	윤해(함안)	유병철(부산엔지니어링센터)
이동수(영도)	백한준(울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김동철(남부산)	임태일(남울산)	이재수(부산고객컨설팅)
유진철(해운대)	김석준(동울산)	
이성철(서면)	이식원(연양)	
김미아(대연)	강동만(진주)	

대구 지방본부(27명)

추교권(동대구)	허윤하(북대구)	송홍경(영주)
김종우(수성)	정명호(칠곡)	윤원상(문경)
손상혁(경산)	박병규(구미)	권오용(청송)
이영택(영천)	박명서(김천)	육상욱(대구고객본부)
이은영(달서)	천명호(상주)	차용대(대구유선운용센터)
박순목(남대구)	이원종(포항)	이준석(동대구유선운용센터)
하중열(중대구)	윤용현(경주)	이재연(경북유선운용센터)
김주혁(달성)	최진환(울진)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정영식(서대구)	이찬원(안동)	김성삼(대구엔지니어링센터)

본사 지방본부(22명)

허건(본사)	노일철(본사)	김용범(융합기술원)
오삼수(본사)	이영인(기업컨설팅센터)	이성갑(Infra연구소)
양호정(본사)	최종국(수납지원센터)	김상현(Service연구소)
변정각(본사)	박종문(국제전화국)	김수진(구매지원센터)
박정해(본사)	민병훈(BizCRM센터)	홍정성(그룹인력개발원)
김진철(본사)	김형욱(네트워크관제센터)	한익희(MO운용센터)
신경우(본사)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임천수(본사)	장성업(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	

전남 지방본부(19명)

이인철(전남고객본부)	정영근(나주)	김정필(호남무선운용센터)
박진수(북광주)	이남권(목포)	류재수(광주유선운용센터)
김광수(수원)	홍유선(강진)	박상운(전남유선운용센터)
고일남(담양)	채희원(해남)	박홍주(호남P컨설팅)
조은일(서광주)	신봉주(순천)	박태규(호남엔지니어링센터)
강성봉(광주)	심금식(광양)	
한승학(남광주)	김응연(여수)	

전북 지방본부(9명)

최춘덕(전주)	노용환(익산)	정광모(김제)
박충범(북전주)	김성수(군산)	김덕경(전북고객본부)
진홍윤(남원)	이광욱(정읍)	김형선(전북유선운용센터)

충남 지방본부(24명)

허은경(충남고객본부)	장동인(서산)	박종오(대전)
조선행(서대전)	윤효중(당진)	박재웅(용진)
김명길(서대전지점)	김용길(부여)	윤용재(신탄진)
이광엽(유성)	김성용(보령)	강희석(충남무선운용센터)
성기세(세종)	명노승(예산)	정학영(대전유선운용센터)
장대연(논산)	신선섭(천안)	이종훈(충남유선운용센터)
김용섭(공주)	김성수(아산)	오동윤(충청엔지니어링)
주현수(홍성)	조규정(남천안)	권승태(충청P컨설팅)

충북 지방본부(9명)

김신녀(충북고객본부)	신한식(속천)	이춘영(금영)
고재성(청주)	최재웅(충주)	장민철(진천)
이학승(서청주)	송창규(제천)	김종원(충북유선운용센터)

강원 지방본부(12명)

안상진(춘천)	박광호(속초)	박영섭(대백)
윤필상(홍천)	박한수(동해)	전형집(강원고객본부)
황원중(화천)	한윤의(원주)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권창순(강릉)	김동규(평창)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제주 지방본부(5명)

김경철(제주고객본부)	최태중(신제주)	김양은(제주네트워크)
홍관표(제주)	이조희(서귀포)	



2017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2천만 노동자의 새 희망과 미래 “같이 갑시다! 함께 만듭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여, 2017년 노동시장은 앞으로 기대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노동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가 그간 산적한 노동현안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연대와 투쟁의 조화로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계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지금, KT노동조합은 어떠한 역사를 써나갈 것인가. 노동자와 대중의 새 희망에 동참하기 위한 간부들의 능동적인 혁신과 단결, 그리고 신념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작금. 바야흐로 KT노동조합은 '다시 처음으로!' 향하는 초심을 다져 '현장과 조합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경영의 감시자와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격차해소 위해 응집하자!

KT노동조합의 2017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12대 집행부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전국대의원대회는 지난 5월 24일(수) 분당 KT본사 대강당에서 막이 오른 가운데, 노동자를 응집할 조합간부들의 혁신과 단결을 다지는 결의의 장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258명의 대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정운모 위원장을 비롯한 12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간부 및 황창규 회장과 구현모 경영지원총괄사장 등의 회사 경영진,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노동가수의 공연을 필두로 막이 오른 사전행사 후 본격적인 본 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정운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의원들과 참석 내빈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 뒤 “집행부 3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공동체의 튼튼한 토대를 위해 공정사회와 격차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운동을 더욱 힘 있게 펼쳐나갈 것”을 선언하고, 이어 “우리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임금·복지의 향상, 현장중심 경영, 회사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과감한 비판”과 함께 국민기



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폭넓은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책임을 나눠지기 위한 “대외적인 나눔과 봉사활동 확대”의 약속도 끝까지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힘은 많은 숫자로 결집된 조직에서 나온다. 이제 노동자의 힘으로 또 국민의 이름으로 힘을 합치자.”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당부하며 격려를 보냈다.

황창규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KT가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것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 덕분이다”고 인사한 뒤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애써 주신 노동조합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미력하나마 저 또한 건강한 회사는 물론 글로벌 1등 KT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휴식 뒤 곧바로 진행된 2부 본회의는 전국의 대의원 총 260명 중 258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이 가결됐다.

이로써 대의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문 채택과 낭독을 끝으로 KT노동조합 2017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폐회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1부 행사에는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KT노동조합 12대 집행부의 2017년 사업방향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향상' 추진을 위해 총력!

KT노동조합은 대·내외적 정치 리스크로 인해 국내의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황의 심각성 가운데에도 향후 점차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올해는 특히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윤모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허수경영 철폐'와 '무분별한 휴일근무' 및 '노사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포함, '임금과 복지 대폭 향상', '현장 중시 경영', '대등한 노사관계', '노사 공동체 UCC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4가지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됐다. KT노동조합이 노동계 내에서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 단계 진전시킨 2017년 사업방향과 그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정윤모 위원장은 이번 2017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 권력자들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또 다른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고민, 공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16년은 경제침체로 저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사태, 중국의 사드 보복 경보로 정치 정세의 불확실성이 경제문제까지 확산된 해였다. 이로 인해 현 노동시장은 불황과 실업의 공포에 휩싸이고 통신시장 또한 성장이 둔화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KT노동조합이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KT노동조합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언제나 현장과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노동조합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7년은 위기가 바로 기회임을 모든 KT조합원들이 공감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째. 조합원 자존심 살리는 임금/고용안정 쟁취

- 2017년 조합원 만족을 위한 단체교섭 승리
- 단체교섭 전담반 가동
- 연 2회 정기 회계감사 실시로 투명한 재정 운영 강화
- 각 실별 사업계획 관련 효율적인 예산편성
- 부동산임대사업 등 노동조합 자주성 확보 위한 재정사업 확대

셋째.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

- 노사합동 실태조사 강력 시행
- 현장방문을 통한 여론수렴 및 모니터링 실시
- 정기노사협의회, 노사상생협의회 분기 1회 개최
- 상급단체 정책역량 실태조사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 회사의 경영방침 동향 분석
- 우리사주 조합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 전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및 우수 검진기관 선정
- 노후 공기구 신속 대·개체
- 12대 집행부 활동자료집 제작
- YOUTH장학사업 지속추진 등 UCC 사업 활동



둘째. 신바람 나는 복지 실현

- 단체교섭을 통한 복지기금 예산 출연
- 하계/동계 방학 기간 조합원 의료행사 추진
-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임차사택 확보
- 구내식당 노후 시설 대·개체
- 가족사랑 해외여행자 및 우리가족 孝-day 참가자 선정 및 추진
-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 4대 복지 공간(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화장실, 샤워장) 환경개선
- 국내외 타 사업장 복지 우수사례 파악, 적용여부 분석 및 적용
- 전문부서를 통한 수련관 안전진단 시행
- 휴양시설 확대 및 특성화 사업 추진
- 개선된 하계 동계 유니폼 현장 의견수렴
- 다온플랜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기타

넷째. 노동계를 선도하는 노동조합 건설

- 동아시아 포럼 등 세계 통신노동조합과의 교류
- 국내의 통신정책 및 노동정세에 대한 분석
- 대 국회 입법기관과의 대화채널 확보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 상급단체 한국노총(IT사무서비스연맹) 사업활동 적극참여
- KT그룹 노동조합과 연대 강화
- 위원장 현장방문 활성화
- UCC회원사 등 타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 현장 우수지부 포상 및 상벌 강화
- 여성조합원 현장 간담회 실시 등 기타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케이티셋 노동조합 2대 집행부
박경춘 위원장



박경춘 위원장의 고민은 깊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케이티셋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노동조합의 책임과 활동이 요구된다 여기기 때문이다. 분사 5년차를 맞이하며 이제 고유의 빛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케이티셋. 노동조합에 대한 박위원장의 애정은 조합원들의 단순한 복지향상을 넘어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에까지 닿아 있다.

창의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에 힘쓰다

케이티셋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위성 방송 통신 서비스 기업이다. 2012년 12월 KT에서 분사했다. “케이티셋은 한마디로 위성을 서비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독자적 위성 보유사죠. 체신부 시절이던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기지국인 금산위성센터 개국부터 국제통신의 메카로서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2년 KT에스테이트, 미디어센터와 함께 KT에서 분사 후 지금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추진 중입니다.” 1985년 금산위성센터에 입사 후 30여 년간 위성 방송 통신에 관한한 베테랑으로 일해 온 박경춘 위원장은 2012년 분사와 함께 조합 집행부에 합류, 지난해 케이티셋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주위로부터 만형 같은 온화함과 강단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그는 조합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기치로 한마디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2대 집행부는 함께 소통하고 조합원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제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투명한 조합 활동을 이끌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죠. 특히 투명한 조합 활동과 노사 공동에 기반한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노사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사 초기에는 기존 조합원과 신입 조합원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조합원들은 모두 가족 같은 한마음입니다. 그간 주거가 불안한 무연고지 근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불편해소를 위해 힘써왔는데, 지금도 사택마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위원장은 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 기업으로서 케이티셋의 활동이 중요함을 자신의 봉사 경험을 통해 직시하고 있다. “케이티셋의 위상에 맞는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적 의제 해소에 보탬이 되는 조합 활동 그리고 생산적 교섭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케이티셋이 더욱 주변으로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산업을 견인해 온 케이티셋

케이티셋의 주요 사업은 위성 방송·통신서비스 및 중계기 임대, 그리고 해외 전용 서비스다. 최근에는 해상 위성통신서비스인 MVSAT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 연계한 텔레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95년 8월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용 무궁화1호 위성을 발사한 이후 22년에 걸쳐 위성 관제·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케이

티셋은 지난 5월 5일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한국시간 오전 7시 2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에서는 24시간 통신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무궁화 7호 위성이 발사됐다. 이로써 케이티셋은 기존 무궁화 5호, 6호 위성과 공동위성인 콘도셋 등 총 4기의 방송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번 발사 성공은 글로벌 위성 사업자로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올 3분기에는 무궁화 5A호 위성을 동경 113도에 발사해 글로벌 커버리지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궁화 7호 위성은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5호, 6호 위성과 달리, 필리핀과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동 일부까지 지역을 확대해 고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성입니다. 고해상도 위성방송 및 위성 LTE서비스에 최적화된 54MHz 대역폭의 광대역 중계기와 초고화질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비한 방송용 중계기 등 총 33기의 위성 중계기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위상에 비례해 박위원장의 어깨도 무거워진다. “하반기 5A호가 발사되면 명실공히 케이티셋은 글로벌 위성사업자로 발돋움 하게 됩니다. 어깨가 한층 무겁죠. 혼자일 때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은 아닙니다. 회사와 조합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원원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협업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그룹이 합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케이티셋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위성 사업자 15위 이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색깔로 우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회사로 선두에 우뚝 설 수 있는 케이티셋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SSUE & SOCIETY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담겨 있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일자리위원회 신설이다.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노동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노동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목표로 일종의 TF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들여다보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다. 후보 시절부터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약속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사회적 재분배 원칙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국정명령 1호는 바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설이다. 새 정부 출범 6일 만에 발족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및 고용노동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일자리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노동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노사정위 정상화, 81만 개 일자리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의 창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늘려 고용창출과 공공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사회 전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충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긴급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소방관, 경찰 등의 공공부분 충원을 시작으로 요양, 보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 포화에 이른 산업현장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예정이다.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민간기업에게 확대시키고 추가고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수가 더 이상 불어 나지 않도록 기업을 상대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현장에 만연된 임금차별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사내하청도 간접고용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

을 원청기업이 지도록 해 노동자들의 불안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높이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약속하고 내년 최저임금 10% 이상 실현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노동존중’ 위한 장기 과제 추진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에는 ‘노동 존중’이라는 뚜렷한 장기적 목표가 담겨 있다.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적 소통기구’를 설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혁명에 따른 고용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노사정이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단축’과 ‘체불 임금 제로시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체당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협 적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있다. 또한 90%에 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사업장 내 이해자대표기구인 ‘종업원 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이를 민간기업에 전파시키는 한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법원의 최초 복직판결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해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있다. 사용자 위주의 노동정책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노동계의 지지와 시민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보수정부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공적인 노동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노동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 13대 과제

과제	내용
1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수립	• 정부정책 고용영향평가 강화
3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 소방관, 경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충원 • 요양,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4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2018년 10% 인상 실현 • 자영업, 중소기업 보상대책 마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5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 근로시간 단축 피해기업 보완대책 수립
6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해소	• 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정부가 3년간 지원 • 중소기업 청년 공제금 정부 매칭 지원 확대 •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7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혁신 기술기업 플랫폼,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자금 지원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 지원
8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5G 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SOC 구축 계획 수립
9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독이 프로젝트	• 법인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개인 및 연대보증 채무 조정 • 패자부활 '3세번 재기 지원 펀드' 운영
10 지역 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지원 확대
11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 경력 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취업 장려금 최대 1년 지원
12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약속(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확대
13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3법 제정 추진 및 전담기구 설치

도심부터 산간 오지까지, 대한민국 통신망은 우리가 책임진다!

“오랜 경험이 곧 노하우, 상황대처 능력이 중요하죠

강북지방본부 광화문지부 CM팀
임병환, 조영준 조합원

130kg의 맨홀 뚜껑을 맞드는 두 사람의 몸놀림이 능숙하다. 웬만한 사람 키보다 깊은 맨홀 속은 휴탕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정도는 아주 준수합니다. 정말 기겁 할 때도 있어요. 종종 하수도를 관로에 연결하는 경우 물이 맨홀로 다 모여 더러울 때가 많거든요. 도심이라 더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런 걸 똥맨홀이라고 합니다.”
공기유동량 압력 체크를 앞두고 양수기로 맨홀 속 물을 퍼내며 임조합원이 얘기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둔 시기에는 이날처럼 공기주입을 점검하는 등의 맨홀 작업이 많다. 요즘에야 작업복 세탁도 말끔하게 잘 된다지만, 과거에는 작업 후 깨끗한 복장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놀고 왔냐는 핀잔을 들을 만큼 맨홀 작업은 몸을 사릴 수 없이 고되다. 임병환, 조영준 조합원이 근무하는 혜화동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일대는 특히 청와대를 끼고 있어 긴급 상황도 잦다. 도심이니까 시골보다야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밀집지역에다 개발이 제한된 4대문 안 구도심이라 애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황 방문 당시나 촛불집회 같은 광화문 집회들도 많고 청와대를 끼고 있어 긴급한 일이 많습시다. 구도심이라 지중화 사업할 때도 힘들어요.”
CM팀은 통신구, 전주, 지하관로, 케이블 등의 선로시설 유지·보수작업이 주 업무다. 광화문지부의 총 23명 가운데 현장 담당은 7명, 그 중 임병환, 조영준 조합원을 포함한 4명이 혜화지역을 커버한다.



100년 통신역사의 모태이자 뿌리, CM팀

CM(Cable Maintenance)팀 없는 KT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현장에서 통신회선을 설치·유지·보수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는 이들은 명실공히 1등 KT를 있게 하는 근간이다. 물이 가득 찬 맨홀 속 땅 밑부터 위태로운 전주 끝 하늘이 일터인 이 베테랑 기술자들의 땀 흘리는 현장을 다녀왔다.



왼쪽부터 조영준, 김선규 팀장, 임병환, 임성용 조합원

“보편적으로 시설 자체가 고장 나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는 게 기본업무예요. 그 외 신축건물의 회선증선, 초고속인터넷 개설 등의 공사를 하죠. 과거에는 4인1조로 일했는데, 2000년부터 3인1조로 2010년 이후부터는 2인1조로 일합니다. 현장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뻥뻥하고 위험요소도 많아져 작업이 커지면 두 조가 모여 일해요.”
KT의 평균연령이 약45세라면 이곳 팀 평균은 55세, 더구나 내년부터 퇴직이 시작되니 연령대도 높고 충원도 안 되는 상황이 팀으로서 걱정스럽다. 88년 입사해 95년부터 혜화지역에서 일해 온 임조합원은 팀에서 가장 젊다. 구조적으로 후배 양성이 단절된 현 상황이 그 역시 편치 않은 게 솔직한 심정.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혹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주의를 기울인다. 노원구와 동대문구에서의 업무를 포함 30년 넘게 이쪽 일을 해 온 조영준 조합원은 “지하철 1호선 라인은 통신과 맨홀 모두 오래돼 마음대로 파지도 못한다”고 했다. “4대문 안은 노원보다 더 낙후돼 있어요. 허가가 안 돼 작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

면으로도 알 수 없는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오래된 시설들이 많아서 파면 영뚱한 데가 나오기도하고 가끔 관로를 끊어먹기도 하고요. 케이블도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오래된 겁니다.”
때문에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 전부가 노하우가 된다. 그야말로 조영준 조합원의 머릿속에는 경험을 통한 시설 전체의 도면이 새로이 그려지는 셈이다.
“시설 전체를 꿰차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선이 산발적으로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치울지 엄두를 못 낼 때가 있어요. 주택가 창문에 걸리기라도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주변을 훑어보고 선을 보낼 방법을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안전이다. 간혹 잠시 2인이 함께 맨홀로 들어가는 경우 위에서 안전관리를 해 줄 이가 없으니 담장을 친다 해도 불안하다. 주의해도 모든 사고의 가능성이 다 제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각한 주차문제는 또 다른 복병.
“일만 생각하고 현장으로 가지만 막상 ‘딱

지 떼이면 어쩌나’ 신경까지 써가며 작업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구청에서 사정을 봐주는 일도 없죠. 얼마 전 로터리에 씩크홀이 발생해서 구청에서 통신사, 도시가스 등 7곳을 불러 작업 했는데, 주차 관리하는 분이 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갔어요. 구청직원이 결국 처리했지만 4대문 도시권은 러버콘을 세우고 일해도 치우고 사진 찍어가는 일이 허다해요.”
해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일어난다. 또한 두 조합원은 CM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젊은 인력이 보강돼 일정 업무를 전수하면서 끌고 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고의 KT를 위해 기반을 다져온 자신들의 자부심이 이후에도 후배들을 통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때문이다.
“이제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양성시켜 업무가 전수되도록 회사차원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CM업무는 KT의 근간이자 저희들의 자부심이니깐요.”



홍천지부 CM팀에는 '철인'이 있다!

강원지방본부 홍천지부 CM팀 강대철 조합원



지금은 길이 좋아졌지만 과거만 해도 큰 무지 일대는 오지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인제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3개 리를 다 쓸고 내려갔죠. 그 때만 해도 도로, 통신, 전력 등 모든 게 안 되던 때라 한 달을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무선 기지국을 먼저 살리고 다니던 게 기억나네요.” 강조합원은 당시 바쁜 일도 제쳐두고 각 지방에서 달려와 준 조합원들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정말 정이 넘치는 회사라는 걸 느꼈습니다. CM팀은 전국 어디서든 서로가 공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CM팀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면서 작업하는 만큼 다른 팀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15명의 CM팀이 일하는 홍천지부도 현장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 주 업무인 광케이블 유지보수 외에도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VOC관리, 개통 AS 직원관리, 신규AS 등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3개 팀이 나와서 협업한 겁니다. 지장 이전은 한두 팀으로는 못 할 업무라 다

같이 투입돼야 해요. 신경망처럼 뻗어있는 케이블이라 팀을 나눠서 가기도 하고요.” 선의 나이로 팀의 막내인 그는 지부 내 형님들에게는 늘 ‘이쁜 동생’이자 업무에 있어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평가받는다. 그러나 신규 인원이 없는 터라 당장 홍천지역만 보더라도 4, 5년 후엔 본인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에 불안감도 없지 않다고. 늘 위험을 감수해야 일이니 팀워크는 필수다. “다들 눈빛만 봐도 순서를 착착 정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혼자서 무리하게 일하면 전주에서 내려오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곤 하죠. 인원이 열 명이라도 전주 열 개에 각 한 사람씩 올라가야 하는 경우처럼 예전에 인원이 없을 때는 사다리, 바이스를 다 매고 혼자 일한 적도 많아요. 케이블 높이는 아래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밑에서 한 명이 꼭 보조하고 대화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해요.” 언뜻 보기에 다부진 체격으로 가파른 전주 위를 가볍게 오르내리고 버터내는 강조합원의 체력유지 비결은 남다르다. 그는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든 철인 3종 경기, 그것도 ‘올림픽코스’나 ‘하프코스’가

아닌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의 ‘킹코스’를 완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철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극이 필요해 도전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도전이 두렵기도 했죠. 작년 여주 대회 때 킹코스에 처음 도전해서 완주했는데, 수영 끝나면 에너지 바 먹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도시락 간단히 먹고 6시간30분 정도 완주하면 이어서 또 달리기... 완주까지 12시간 40여 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성취하고 나면 ‘이것도 해냈는데 힘든 일도 이겨내자’라는 각오가 생깁니다.” 강조합원은 올해 9월 구례에서 열리는 ‘2017 아이언맨 구례코리아대회’에 도전하기 위해 철저한 몸 관리가 한창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다섯 차례 정도는 더 완주에 도전할 겁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테랑으로서 팀원을 이끌어가는 강대철 조합원. 자신과 일에 관한 그의 목직한 애정이 KT 안에 이름처럼 강하게 각인되기를 기대해본다. 홍천지부 CM팀의 ‘강한 철인’ 강대철로 말이다.

찾아간 곳은 오지다. 곰배령과 진동계곡으로도 유명한 인제군의 산골마을 진동리, 도심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던 날이었지만 이곳 기온은 13도. 지나치는 차량 보기도 힘든 계곡 옆 비포장 좁은 산길에서는 크레인에 버킷까지 동원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강대철 조합원을 포함한 조원들은 연신 호흡을 맞추며 7m의 전주를 세우고 굵은 케이블을 짊어지며 설치에 여념이 없다. 이날 작업은 사유지 경지정리로 인해 통신시설을 이전하는 일. ‘농지를 개간해야 하니 예전에 시설된 가공선로를 길 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덧 붙여 유선전화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한 명의 요청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다. 91년에 입사해 춘천과 인제를 거치고, 홍천과 인제가 홍천지부로 통합된 후부터 줄곧 이곳에서 일해 온 강대철 조합원은 지장선로 이전과 케이블 유지보수 외에 도로공사 순회점검 등 선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M팀의 베테랑이다.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시설을 도면 없이도 선로 루트를 이해해 풀어 갑니다. 홍천은 서울의 3배 인제는 2.7배예요. 타 지역보다 고객 수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애로 점이 많죠. 그래도 오래 근무하다보니 현장에 나가면 문제점을 즉각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서 시설이 다 파악됩니다.”



왼쪽부터 신호선, 심우국, 장정균, 윤창기, 윤필삼, 강대철, 정돈욱 조합원



대부제도

업그레이드 설명서

만화 김재욱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난감하네요.

나도...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좀...

잠깐!! 2016년 단체교섭을 통해 확 달라진 KT 임직원을 위한 대부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자도 내렸어요~!

2% → 1% 2017

내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대출 한도는 충분한가요?

그럼요!

올려!!

우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인데요. 두 가지를 합친 한도는 총 5천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주택마련 (5천만원)

주택임차 (3천만원)

주택자금

긴급가계자금은 2천만원.

어때요? 빵빵하죠~?

굿~!

이거 실화냐?

긴급가계자금

대부제도 세부내용

주택 마련이나 임차 자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 #### 주택자금
- 자격요건 : 본인포함 부양가족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자는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부가능)
 - 지원한도 : 마련 5천, 임차 3천만원(생활안정자금 합산 5천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월 1회(신청 1~15일, 선정 20일, 지급 말일)
 - 채권확보 : 보증보험 또는 연대보증(최대 3천만원 가능)
 - 이 자 율 : 연 1%
 - 상환방법 : 10년 또는 11년간 원금균등분할

뜻밖의 생활안정자금도 걱정 마세요.

- #### 생활안정자금
- 자격요건 : 결혼, 사망, 노부모 요양, 의료비, 재난발생, 자녀 입학(100km 이상), 인사발령(100km 이상)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주택자금 합산 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월 1회(신청 1~15일, 선정 20일, 지급 말일)
 - 채권확보 : 보증보험
 - 이 자 율 : 연 1%
 - 상환방법 : 5년간 원금균등분할

긴급한 가계자금에도 당황하지 마세요!

급할 때 역시 최고예요!

- #### 긴급가계자금
- 자격요건 :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직원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한도 무관)
 - 지원시기 : 반기 1회(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채권확보 : 보증보험 또는 연대보증
 - 이 자 율 : 연 1%
 - 상환방법 : 5년간 원금균등분할

신청방법

주택/생활(안정자금)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대부

긴급가계자금 : 기관별 대부자 선정위원회

신청도 궁금해요?

살았따~

급할 때 큰 힘이 되는 KT 대부제도로 모두 힘 내세요!

미세먼지 스트레스, 안녕~!

KT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처법

요즘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건 필수가 돼버렸다. 이유는 바로 '미세먼지'. 혹여 나들이라도 하려면 비바람보다 미세먼지 수치 항목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삭막한 모습과 마주하는 일도 이제 익숙하다. 봄철 황사만 걱정하던 시절은 먼 과거라 할 만큼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며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까지 유발하는 복병. 이에 KT가 미세먼지 대응에 동참하며 고민해결에 나섰다. 미세먼지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는 KT의 스마트한 서비스에 주목해보자.



'미세먼지' 삼진 아웃! kt위즈,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 실시

야구사랑은 날씨도 막을 수 없었지만, 돛구장이 아닌 다음에야 야외에서 관전하는 야구팬들 역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팬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kt위즈는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개막전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시즌 종료 때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수원 kt위즈 파크 각 출입 게이트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2,000개를 비치해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경기 전과 이닝 사이에는 미세먼지 예방법을 환기시키는 영상도 상영한다.

특히 경기 당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스마트티켓, 스마트오더, 실시간 중계, 체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체 앱 위잡(wizzap)이 홈경기가 열리는 날 미세먼지 농도를 푸시 알림 서비스한다. 또 경기 당일 전광판 상단 화성 조형물 조명에는 대기 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색색의 불이 켜지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빨강, 보통이면 파랑, 낮으면 초록색으로 조명이 표시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kt위즈는 홈 6연전의 경품으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기가 IoT에어닥터' 10대를 내걸어 미세먼지 방지와 팬심까지 잡는 센스를 보였다.



GiGA IoT 에어닥터

주목! 공기질 측정기 '기가 IoT 에어닥터'

집안도 더 이상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세먼지는 옷에 묻은 먼지나 집안 내 유해 환경물질에서 생기는 먼지로 인해 실내에서도 건강을 위협한다.

KT의 '기가 IoT에어닥터'는 이러한 실내 공기 환경을 측정하고 진단한 뒤 앱을 통해 공기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 공기 질 측정기다. 이름처럼 집안의 공기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에어닥터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온도와 습도까지 총 6가지의 대기환경 정보를 측정한 뒤 이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불빛으로 나타내고, 이들 환경 정보 측정값을 하나로 통합해 실내 환경종합지수로 알려준다. 집 안의 공기 상태가 어떤 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영유아, 학습능력, 알러지 케어,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모드 선택도 가능하며 관리 기준을 이탈했을 경우 푸시 메시지로 알려준다.

그 외에도 다른 IoT 기기들과 연동해 자동관리, 사용자 맞춤형 모드 등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는데, KT와 LG전자가 함께 출시한 '기가 IoT 홈매니저' 서비스는 가정 내 무선공유기를 통해 가전 제품들을 연동하는 서비스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오븐, 냉장고, 세탁기 등 6가지 가전들의 상태를 확인해 원격 제어하고 상태를 통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홈매니저 앱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쾌적한 실내 공기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에어닥터가 함께 설치돼 있는 경우라면 에어닥터 스스로 실내공기 상태를 감지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레시피 기능 설정은 가정 내 IoT기기들을 고객 상황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자동으로 복합제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iGA Genie

주말에 뭐해? KT 홈서비스로 집에서 놀자

에어닥터와 기가 IoT 홈매니저 서비스로 집안 공기가 깨끗이 관리된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가장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는 바로 집. 이럴 땐 집안에서 인공지능 TV '기가지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전혀 심심하지 않다. KT의 인공지능 TV인 '기가지니'는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말이 통하는 TV다. 또 지니 뮤직 서비스를 세계적인 오디오 기기 제조사인 하만카돈의 프리미엄 스피커를 통해 원음에 가까운 고품질로 감상할 수 있다.

기가지니는 리모컨 없이도 '지니야, TV켜줘' 한마디면 TV가 켜지고 원하는 채널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라디오도 당연히 '지니야, 라디오 들려줘'라는 말로 들을 수 있다. 만일 생활 속 정보가 궁금하다면 검색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대신 지니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알려준다.

음식 배달주문도 지니가 해준다. 밥하기가 귀찮아 뒹굴 거리거나 TV를 보다가 피자 생각이 떠오르면 '지니야, 피자 배달 시켜줘'라는 한마디면 된다. 집 근처의 영업 중인 음식점과 바로 통화 연결이 가능한 기가지니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편리하게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 단 통화서비스는 100번 고객센터로 문의해 KT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가입 후에 이용 가능하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가 걱정이라면, 이제 에어닥터로 관리된 깨끗한 집안에서 똑똑한 친구 기가지니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반려동물과 '잘' 살아가기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고, 늘어가는 1인 가구와 고령화로 그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을 그러나 우리는 생각만큼 잘 키우고 있을까. 내가 쏟는 애정에도 불구하고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은 분리불안 증상으로 사회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보자.



요즘 TV에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다룬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개통령'으로까지 불리며 독보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훈련사의 인기는 연예인 못지않다. 그가 TV화면 속에서 반려견의 문제 행동들을 가뿐하게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사가 날 정도다. 아울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이 사랑스런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무지함마저 일깨워준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불안감이나 외로움, 강박 등 정서적으로 힘든 감정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완화될 뿐 아니라, 비만율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현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 (pet+family)족이다. 특히 혼자 생활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1인 가구에서 펫팸족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대 소비 트렌드는 '편의점, 온라인 쇼핑, 반려동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삶의 축이라는 얘기다. 이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 시장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한다.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1인 가구의 지출은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속도만큼 급속도로 늘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물들이 최소한 누려야 할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굶주림과 비만 등 부적절한 영양관리에, 오염되고 불쾌한 환경 또는 통증과 질환이나 부상 등의 신체적 고통, 거기에 본능을 억제당하거나 외로움과 공포, 불안 같은 정신적 고통이 반려동물들의 행복할 자유를 방해한다.

주로 1인 가구일 경우, 반려견들은 주인이 출근하거나 여행을 떠나 혼자가 되면 오랜 시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외로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반려견들은 짖어대고 물건을 부수고 아무데나 배변을 실수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분리불안 상태가 되며, 이러한 공격적 행동들은 심지어 이웃 간 다툼이나 동물학대, 유기견 문제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분리불안을 예방하려면

분리불안을 겪는 반려동물과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보호자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분리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입양한 경우라면 여러 차례 1~2분 정도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점차 5~10분으로 시간을 늘려 보호자가 외출해도 돌아온다는 믿음을 주도록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출 전에는 과도한 인사를 하지 않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해두며, 외출 후에는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히 쓰다듬어 준다. 반려견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전용 개껌 등의 간식으로 무료함을 달래주거나, 혼자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체취를 맡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옷이나 이불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책이다. 필요한 활동량을 충족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곳을 탐색해 독립심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전문 플랫폼 서비스 '알하우스', 가정용 CCTV '기가 IoT홈캠'

고민에 대한 색다른 해결방법을 원한다면 반려동물 전문 케어 서비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올레tv의 반려동물 케어포털 '알하우스'의 경우 반려견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가상 토이, 그리고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 등 반려동물 전용 콘텐츠 약 5,000여 편을 제공한다. 또 외출모드와 스마트폰 앱으로 집 밖에서도 TV제어가 가능하며, 주인의 목소리와 사진을 전송해 반려동물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용 CCTV인 'GiGA IoT 홈캠'도 걱정을 덜어 줄 대안이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혼자 집에 남겨진 반려견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반려동물의 모습을 살피고 양방향 음성전송 기능을 활용해 이름을 부르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강형욱 훈련사가 쓴 책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가 키울 자격을 기르는 일이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이 오히려 나로 인해 외로워지는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보다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삶의 질 또한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Welcome

2017년 하계휴양소 운영

전국 22곳, 7월 21일~8월 20일까지 이용

KT조합원들의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책임 질 하계휴양소가 선정됐다. 이번 하계휴양소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 및 경기도 등 전 지역에 걸쳐 22곳이 고르게 엄선되어 조합원들의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 전국 하계휴양시설

• 수련관 운영 기간 : 7월 21일~9월 1일



각 휴양소는 넓은 객실은 물론이고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놀이동산, 레스토랑, 북클럽 등 저마다의 다양한 부대시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돼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도 7곳, 강원도 6곳, 전라도 4곳, 충청도와 제주도가 각 2곳씩, 그리고 경기도에 1곳이 자리한다. 4인부터 7인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별 총 330개의 넉넉한 객실 수와 규모는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데 예도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선정된 휴양소 대다수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휴가의 재미에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특히 지역마다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휴양소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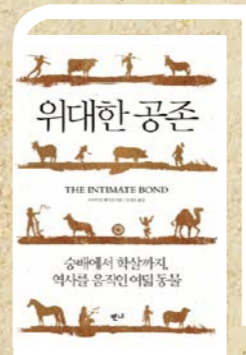
변 관광지와 연계된 요건을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끽할 수 있도록 선별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바닷가 호텔, 산과 어우러진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콘도미니엄, 신나는 물놀이 시설을 갖춘 워터파크 리조트 및 소핑과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레지던스호텔, 거기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독채형 풀빌라까지, 각자의 취향과 조건에 맞춰 어느 곳을 선택해도 후회 없을 최적의 휴양소들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평년보다 더워진다는 올 여름, 휴가 계획은 고민하지 말고 최선의 휴식을 보장해 줄 KT의 하계 휴양소에서 심신을 재충전하며 여유로운 여름을 맞이해보자.

2017년 권역별 전국 하계휴양소 (22개소 330실)

권역	지역	시설명	테마	객실명	면적	형태	인원	취사	특징	연락처	운영본부명
강원	정선	하이원 리조트	휴양	힐콘도-슈페리어	30	룸2+거실+욕실2	7인	가능	아름다운 야경	1588-7789	네트&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휴양	패밀리형	27	룸2+거실+욕실1	7인	가능	4계절종합 휴양지	1544-8833	수도권강북
	속초	마레몬스호텔	바다	슈퍼리어스위트	17	원룸형+욕실	5인	관련	설악 동해절경(오션뷰)	033-630-7000	수도권강북
	속초	라마다호텔	바다	주니어스위트	14	원룸형+욕실	5인	불가능	동해일출과야경(오션뷰)	033-630-6800	수도권강북
	영월	동강시스타	휴양	패밀리	24	룸+거실+욕실	6인	가능	힐링 유럽형콘도	033-905-2000	수도권강남
경북	원주	한솔 오크밸리	휴양	골프빌리지-노블	31	룸2+거실+욕실2	7인	가능	이국적인 시설	1588-7676	수도권서부
	문경	문경새재리조트	휴양	스위트형-42평	42	룸2+거실+욕실2	7인	가능	넓은객실 확대인 전망	054-572-5100	대구
	경주	이스트힐리조트	휴양	슈퍼리어룸	25	룸2+거실+욕실	7인	가능	주변유명 관광지	054-745-5100	대구
부산	포항	베스트웨스턴	바다	레지던스패밀리	13	룸+거실+욕실	5인	불가능	포항 특급호텔(오션뷰)	054-230-7000	대구
	해운대	신라스테이	바다	패밀리디럭스	8	원룸형+욕실	4인	불가능	해운대해수욕장(오션뷰)	051-912-9000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바다	디럭스	13	원룸형+욕실	4인	불가능	해운대해수욕장(오션뷰)	051-933-4300	부산
경남	중구	크라운하버호텔	도심	주니어스위트	18	룸+거실+욕실	5인	불가능	도심형 프리미엄호텔	051-678-1000	부산
	사천	아리떼풀빌라	바다	상천	27	룸+거실+욕실	6인	가능	신축 독채형 풀빌라	064-710-1000	네트
전남	목포	현대호텔	바다	디럭스	11	원룸형+욕실	4인	불가능	서남권특급호텔(오션뷰)	061-463-2233	전남
	신안	엘도라도리조트	바다	비치프론트빌라	15	원룸형+욕실	4인	가능	자연친화 리조트	061-636-3333	전남
전북	군산	유로빌리지36	휴양	콘도형	27	룸2+거실+욕실	10인	가능	힐링쉼터(낚시가능)	063-471-1112	전북
	부안	모항해나루	바다	스탠다드온돌	18	룸+거실+욕실	6인	가능	해변가족호텔(오션뷰)	063-580-0700	전북
충남	태안	호텔파레브	바다	디럭스실버	15	룸+거실+욕실	6인	가능	대천해수욕장(오션뷰)	041-906-7000	충남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워터파크	패밀리형	19	룸+거실+욕실	6인	가능	워터파크	1588-4888	충북
제주	제주	오션스위트호텔	바다	럭셔리	14	룸+거실+욕실	5인	가능	해변 교통요지(오션뷰)	1577-9766	제주
	제주	아모렉스리조트	바다	스탠다드&별관디럭스	18	원룸형+욕실x2	8인	가능	바다인접 (객실1+1)	064-711-0125	제주
경기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도심	1베드룸스위트	19	룸+거실+욕실	4인	가능	테마빌딩 전망	032-726-2000	수도권서부

시원한 북캉스를 위해 챙겨야 할 册, 여섯 가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란 말을 요즘 들어 듣기 어려워졌다. 일 년 내내 쉼 없이 일에 찌들어 사는 직장인들에게 마음 편히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쩌면 여름휴가가 유일한 듯하다. 조합원들에게 한여름 시원한 '북캉스'의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여섯 가지 도서를 엄선했다.



01.

남은 생의 첫날
著 비르지니 그리말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랑스 소설로 에크리르 오페미닌 문학상 수상작이다. 이 책은 세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이도 다르고 성격 또한 천차만별인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허무하거나, 사랑을 잃었거나, 삶에 실망'하고 난 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첫사랑인 남자와 결혼해 두 딸을 키우며 사랑을 지키려했던 마흔 살의 마리, 젊은 시절 만난 연인과 일생을 함께해왔지만 서로의 신뢰를 잃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한 예순두 살의 안느, 그리고 똥보라는 별칭을 받고 혹독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로 뛰어난 미모를 갖게 됐지만 똥보 시절 사귀던 남자로부터 무참히 버려진 스물다섯 살의 카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02.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著 박대령

심리상담사인 저자 박대령은 수많은 상담을 통해 자신과 상담자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도전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관계를 맺는 방법부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요령,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기술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관계 맺는 데 서툴러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고통스러웠거나, 대인관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독자들은 열 수 있을 것이다.

03.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著 김민태

EBS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태 PD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커다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치밀하고 잘 짜인 계획이나 웅대한 목표가 아닌 대수롭지 않은 '작은 행동'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출근길에 '고작 15분' 더 걸으면서 어깨 결림이 사라지고, 독서량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계획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닌, 작은 행동이 좋은 계획을 이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줄 작고 가벼운 행동을 '한 번 하기라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법을 저자는 알려준다.

04.

위대한 공존
著 브라이언 페이건

이 책은 해묵은 동물 보호나 윤리,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자는 인간이 동물을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역사의 흔적을 따라 이성적으로 추측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음을 밝힌다. 저자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8가지 대표적인 동물을 통해 인류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지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시각의 지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05.

음식의 언어
著 댄 주래프스키

스탠포드 석학인 댄 주래프스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교양 강의인 '음식의 언어'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는 메뉴판에 담긴 레스토랑의 영업 전략, 앙트레의 용법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계급, 포테이토칩이나 아이스크림 마케팅이 겨냥하는 우리의 취향, 맛집 리뷰에서 호평과 악평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인간의 진화와 심리, 행동을 해독하는 은밀한 힌트들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전 세계 음식문명에 대해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심리 등 전방위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이 책의 다른 이름은 한 마디로 '먹기어원학'이라 할 수 있다. 딱딱한 논리가 아닌 역사적 실례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06.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홍익회 共著

인간의 문명사는 대부분 서구의 시선으로 서술해왔다. 반면 이 책은 국내 저자가 동양인의 눈으로 다섯 가지 상품을 통해 인류문명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연고 그리고 석유가 고대 유대인으로부터 문명의 전파를 타고 동아시아를 지나 극동의 한국에 이르는 동양의 멀리 떨어져 있는 문명끼리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명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학자인 데 반해 이 책의 저자들은 무역 전문가들이라 보다 생생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시각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 경험해보자.

천혜의 자연과 첨단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

미소의 나라, 자유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태국



여행지에서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일도, 다급한 응무도 없으므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하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더욱 풍족해진다. 안식년 휴가는 시간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 안식년 휴가를 위한 자유여행 시리즈, 네 번째 목적지는 태국이다.

태국의 정식 국호는 '랏차 아나팍 타이' 즉 타이왕국이다. '타이'는 자유라는 뜻이다. 태국은 화려한 불교사원과 이국적인 야생동물, 아름다운 섬, 눈부신 해안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천혜의 자연과 고대 문화유적, 첨단 현대문명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일찍이 여행문화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 매력적인 여행지로 알려진 이유다. 또 '미소의 나라'로 불릴만큼 온화한 태국인의 성품이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연중 이어지는 다양한 축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태국 음식은 여행에 즐거움을 더한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태국은 여행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이다.



1. 카오니아우&끼야양 2. 방콕 프라보롬마하랏차왕 방콕왕궁

전 세계 배낭 여행의 중심, 방콕

방콕은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220년 수도로 이어져온 역사 도시다.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 중 하나로 화려한 사원과 궁전, 수상 가옥, 전통 민속춤, 화려한 쇼, 수많은 쇼핑 센터 등으로 거리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 방콕 여행의 필수코스는 카오산 로드, 태국어로는 따논 카오산이다. 프라나콘구 방람푸 지역에 있는 거리로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저렴한 숙소, 맛 좋은 음식, 다양한 쇼핑,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편과 투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태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동남아시아 여행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랏따나꼬신은 짜끄리 왕조와 방콕의 역사를 한눈에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방콕의 일상적인 삶과 고대 유적이 어우러져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랏따나꼬신만 둘러봐도 방콕 볼거리의 절반은 보는 셈이다. 주변에 있는 왕궁, 왓 프라깨우(에메랄드 사원), 왓 포(열반 사원), 국립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짜오프랴야 강 건너편에 자리한 왓 아룬(새벽 사원)도 일정에 넣으면 좋다.

Travel Tip

인천에서 방콕까지 비행은 약 6시간. 시차는 방콕이 서울보다 2시간 늦다. 1THB(태국 바트)는 33원. 인천-방콕 구간은 매일 15편 이상의 직항 노선이 운항한다. 태국 입국 시, 담배와 주류는 구매제한법규가 적용된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인 주류 1리터 미 만, 담배 200개비 또는 담배 제품의 총 중량 250g 미만만 면세 반입이 허용된다. 1리터 이상의 주류나 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품 압수와 함께 주류 구매 가격의 2배, 담배 1보루 당 10배에서 1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에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나 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주류 1리터)만 소지해야 한다.

Tip 인천에서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는 수완나품국제공항(BKK)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방콕 시내까지는 공항철도 (Airport Rail Link)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을 포함해 총 8개 역에 정차하며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30분이면 시내에 도착하고, 태국 전철 MRT역과 BTS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새벽에 도착한다면 택시를 이용하자. 공항 1층 'Public Taxi' 표지를 따라가면 택시 승강장에서 목적지에 따라 택시 번호와 기사 이름이 적힌 티켓을 준다. 서비스 요금 50THB이 추가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티켓은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혹 미터를 켜지 않고 가격을 흥정하려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컴플레임 제기를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택시를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층이 아닌 3층에서 택시를 잡는 것. 공항 3층은 출구장으로 시내에서 택시를 태우고 와서 내려준 후 다시 시내로 돌아가야 하는 택시들이라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거의 없다.

다이버들의 천국, 꼬따오

꼬따오는 '거북이 섬'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이다. 타이 만의 꼬사무이, 꼬팡안 등과 함께 춤폰군도를 이루고 있다. 꼬따오는 스쿠버다이빙으로 유명하지만 주변의 사무이 섬이나 팡안 섬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관광객은 적은 편이다. 꼬팡안으로부터 1시간, 수랏타니로부터 6시간, 춤폰으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꼬따오의 사이리 해변은 특히 유명하다. 해변의 모래사장이 섬 서쪽 전역에 해당하는 해안가 1.7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섬을 돌아가며 곳곳에 스노클링 포인트가 몰려 있고 인근에 춤폰 피나클, 샤크 아일랜드, 세일 락 등 다이빙 포인트도 섬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편 꼬따오 북서쪽에 자리한 꼬낭유안은 지상 낙원이라 할 만하다. 꼬낭유안은 세계의 작은 섬이 하나의 해변을 공유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굳이 다이빙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꼬따오는 천혜의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풍광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Tip 우리나라에서 꼬따오로 가는 직항은 없으므로 반드시 방콕을 경유해야 하는데 방콕에서 꼬따오로 들어가는 방법은 네 가지다. 1.방콕에서 버스로 춤폰 선착장까지 가서 꼬따오행 페리로 갈아탄다(소요시간 10시간 이상) 2.방콕에서 기차로 수랏타니 역까지 가서 꼬따오행 페리로 갈아탄다(소요시간 14시간 이상) 3.방콕에서 비행기로 수랏타니 공항까지 가서 붕고 타고 춤폰 선착장으로 가서 꼬따오행 페리로 갈아탄다(소요시간 3시간 안쪽) 4.한국에서 직항으로 꼬사무이에 가서 꼬따오행 페리를 탄다(일타쌍피, 신희여행지로 유명한 꼬사무이와 꼬따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1



2



3



4

눈부신 천상의 섬, 씨밀란 군도

씨밀란은 태국어로 '아홉'이라는 의미다. 푸껫 북서쪽으로 90km 가량 떨어진 9개의 섬이 군도를 이루고 있다. 씨밀란 군도 주변은 태국에서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로 유명하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9개의 섬은 각각의 이름과 함께 번호로 불린다. 천국은 쉽게 허락되지 않듯, 씨밀란에 출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의 반에 불과하다. 우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뱃길이 험난해 씨밀란에 갈 수 없다. 출입이 가능한 기간에는 대부분 투어 상품으로 씨밀란을 방문하게 된다. 투어에는 왕복 배편과 픽업 서비스, 스노클링, 씨밀란 국립공원 입장료, 보험, 커피, 차, 음료, 스낵, 점심식사, 영어 가이드 등이 포함된다. 푸껫의 여행사에서든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만, 탐라무의 여행사에 예약하면 조금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콕에서 바로 출발한다면 탐라무의 여행사로 예약하면 된다. 일일투어를 이용할 경우, 투어 프로그램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숙박이 가능한 4번 섬과 8번 섬에 머물며 국립공원에서 조성해 놓은 네이처 트레일(Nature Trail)을

즐길 수도 있다. 두 섬 모두 텐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4번 섬에는 방갈로도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며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Tip 방콕 남부터미널에서 푸껫행 버스를 타고 탐라무에서 하차한다. 탐라무까지는 약 1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탐라무 버스 정류장에서 씨밀란 스피드 보트 선착장까지는 특도로 이동한다. 탐라무 선착장에 있는 로컬 여행사에서 투어를 예약하면 된다. 4번 섬과 8번 섬의 레스토랑은 문을 여는 07:00~19:00에 이용할 수 있다. 섬을 떠날 때는 최소한 하루 전날에 여행사 가이드에게 알리는 게 좋다. 성수기에는 보트 좌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비행기로 푸껫으로 이동한 후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섬 내에는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물이나 과일 등도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작지만 풍요로운 마을, 빠이

치앙마이 북서쪽에 자리한 빠이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매홍쑤의 작은 마을이다. 작은 강과 산에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곳이다. 빠이에는 특별한 볼거리는 없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유유자적할 수 있다. '예술가의 마을'이라는 별칭답게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 많은 예술가들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히피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수공예품과 길거리 조형물들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해가 지면 작은 술집에서 잔잔한 재즈의 선율이 흘러나와 감성을 자극한다. 자연 친화적인 숙소, 아늑하고 정감있는 레스토랑은 특유의 평온함을 선사한다. 특별한 것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이유다.

조용한 카페에서 한가로이 책을 읽거나 트래킹, 래프팅을 즐기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빌려 근교를 여행할 수도 있다. 태국 현지 요리를 배우고 시식할 수 있는 쿡킹 클래스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Tip SSA에어라인(경비행기)에서 치앙마이와 빠이 구간을 1일 3회 운항한다. 소요시간은 30분. 빠이 공항은 시내와 차로 10분 거리이다. 버스로 이동할 경우 치앙마이에서 빠이까지 3시간 소요된다. 버스 이용은 경비행기 이용료 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꾸물꾸물 이어진 산길을 이동하는 터라 간혹 차멀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수도권강남고객본부지부 김영미

우리사회 전반적인 이슈사항을 정리하고 추려서 책에 올려주시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복지 등은 한 눈에 훑어보게 정리를 해 주셔서 챙겨서 읽어보게 되네요. 또한 길따라 멋따라 소개해 주시는 여행지, 다음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좋은 팁이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 드려요.

서대전지부 하태근

이번 소식지의 기획특집인 '은퇴자들의 질은 고독 Next Job이 살린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은퇴를 앞둔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대안과 퇴직 계획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은퇴자들이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연재를 통해 읽어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지부 이수진

결혼, 부모님 회갑, 출산 등 아직 겪어야 할 경조사가 많은 사원입니다. KTTU카툰에서는 어떤 경조사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 특히 더 유익했습니다. 타 회사에 비해서 복지제도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도와 지원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동기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길'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소식들을 많이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지부 이현아

야구 팬이라 kt wiz 김진욱 감독님, 박경수 주장 인터뷰를 가장 먼저 봤는데요. 개막 초 상승기세가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늘 웃으며 신바람야구를 하는 우리 kt wiz 선수들 격하게 응원 합니다. 박경수 선수 인터뷰 끝에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더욱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들기 위해 힘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 kt 직원들에게도 힘내라는 응원을 전하는 듯 합니다. 신바람 야구, kt wiz 파이팅!

구미지부 김동한

2개월에 한번씩 출간되는 길 책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을 만화로 해주셔서 편안히 잘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맛집, 여행지 한 곳씩 실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산지부 이진한

저희 경제경영연구소도 직원 휴게실, 개인 사물함, 사무실 그림액자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이 더욱 쾌적하고 마음 편한 공간이 될 때 우리 회사가 행복할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고객본부지부 서가진

금번 소식지 '길'을 통해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KT 위즈'에 대해 다시금 자부심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는 'KT 위즈'의 좋은 기운을 받아 이번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많이 부탁 드립니다.

고양지부 박종기

KT노동조합 소식지 새희망의 길을 읽으면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내 외 여러 가지 소식들과 복지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국내외 여행지도 소개해주는 등 여러모로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오산지부 조준원

새희망의 길 소식지는 모든 직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커피 한 잔 즐기면서 좋은 정보를 읽고 감상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교과서입니다. 항상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 합니다^^

기업사업부문지부 안태선

통고동락하는 '반려 로봇'을 통해 우리와 많이 가까워져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회사의 'kt 기가 지니'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로봇들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KTTU QUIZ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 KT SAT이 지난 5월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쏘아 올린 위성으로, 동경 116도에 위치 하게 될 방송통신 위성은? (13페이지 참고)

가로 2 타이 사뭇빠라칸 주 방플리 군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 돈므앙 국제공항을 대체하여 새롭게 개항한 방콕의 신 국제공항은?? (31페이지 참고)

세로 1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8가지 대표적인 동물을 통해 인류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지 흥미롭게 서술한 도서명은? (29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